

사회

■ EBS 교재서 수능 70% 출제…입시 전문가들 조언

“EBS 수능강의 교재 맹신은 금물 학교수업 충실…복습차원 접근을”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직접 연계하기 위해 감수한 EBS 수능강의 교재에 수험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 교재 140여권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는 모두 115권이다.

구체적 목록은 ▲EBS ‘수능특강’ 언어·외국어·수리영역 4권(언어, 외국어, 수리·수학 I, 수리·수학 II) ▲사회·과학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14권(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일본어, 중국어, 한문) 등이다.

또 ▲라디오 고교 듣기(영어·국어) 3권 ▲인터넷 수능특강(사탐·과탐) 8권 ▲고등점 N제(언어·외국어·수리)

8권 ▲인터넷 섹션별 언·수·외 15권 ▲10주 완성 수능특강(언·수·외 및 사탐·과탐) 15권도 포함돼 있다.

▲EBS 파이널 수능특강 실전 모의고사 15권(언·수·외 및 사탐·과탐)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과탐·사탐) 8권 ▲실전 모의고사(직탐 및 제2외국어·한문) 25권도 평가원이 감수했다.

박 회장은 또 “교과 수업 내용을 압축한 EBS 교재만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학교에서 수업을 충실히 하면 교재는 뒤 복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와 평가원, EBS 세 기관은 “수험생이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수능시험(모의평가 포함)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능강의 및 교재와 수능

시험 출제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EBS 수능강의 교재를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박연종 광주지역 고교진학부장 협의회장(송원고)은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요 개념과 내용, 도표, 각종 통계 등을 인용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개념 등을 충실히 익히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교과 수업 내용을 압축한 EBS 교재만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학교에서 수업을 충실히 하면 교재는 뒤 복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와 평가원, EBS 세 기관은 “수험생이 EBS 수능강의 및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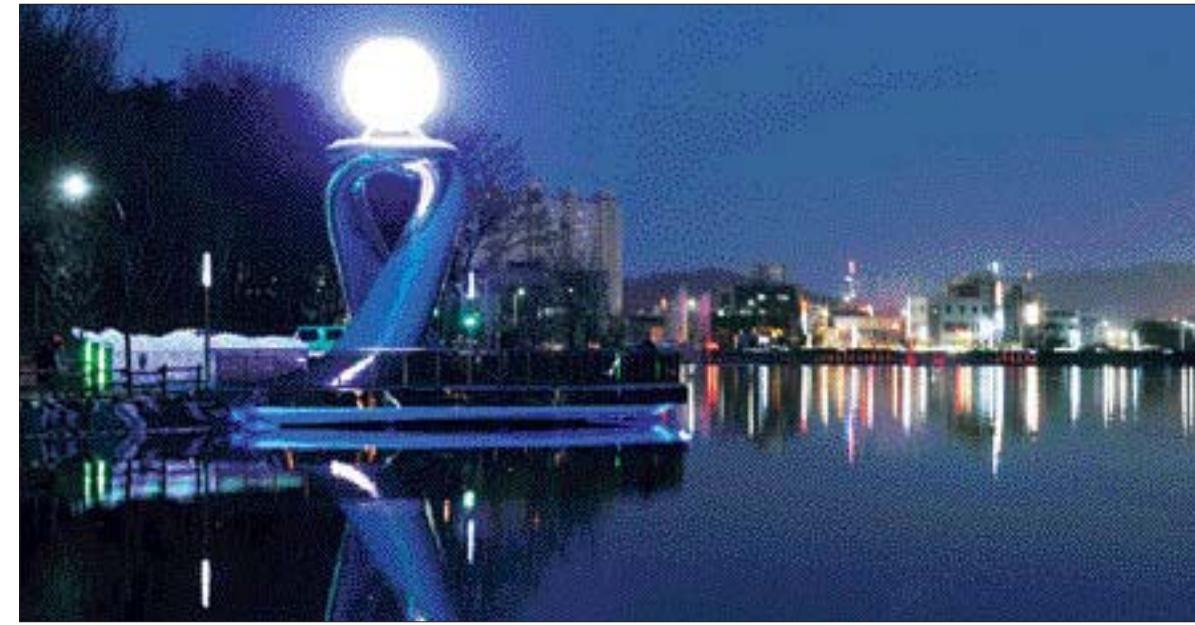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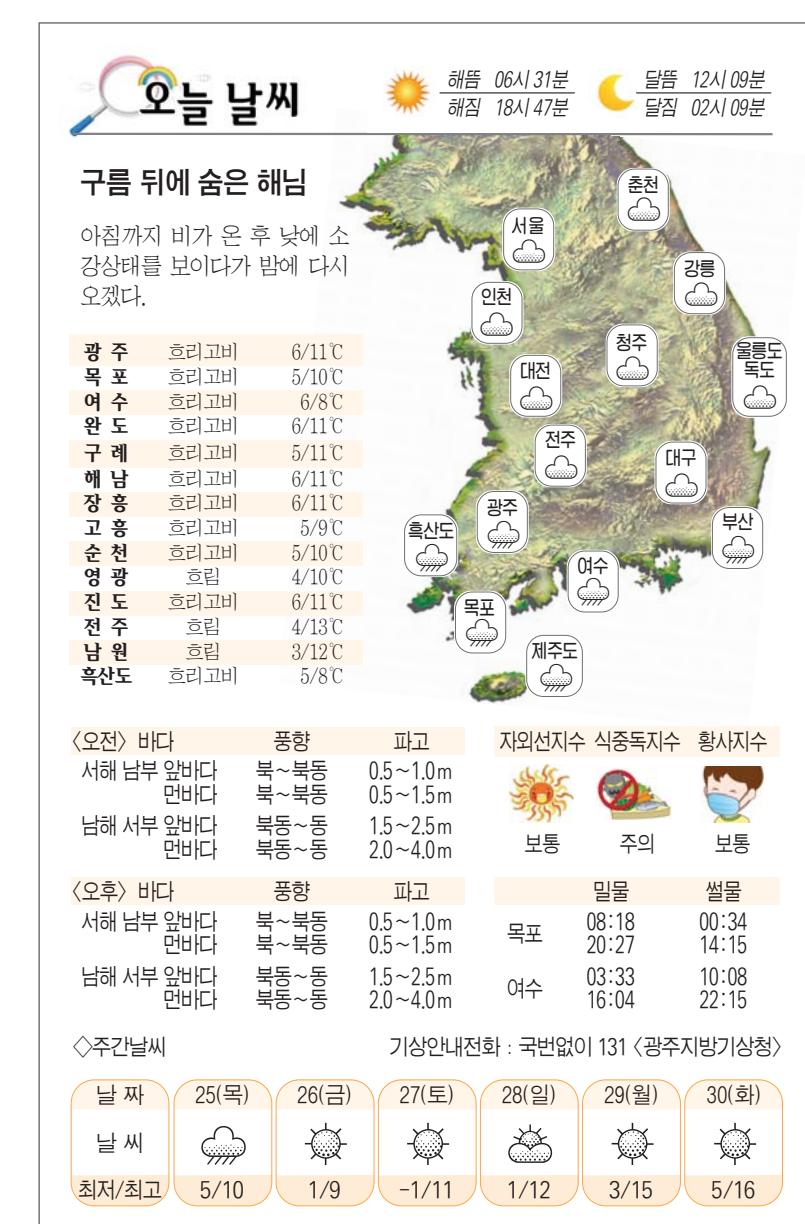
재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수능시험(모의평가 포함)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능강의 및 교재와 수능

시험 출제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교육과정평가원 감수 EBS 수능교재

교재명	책수	과목명	대상	발간일
수능특강	4책	언어, 외국어, 수리-수학 I, 수리-수학 II		
	14책	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일본어, 중국어, 한문	중상	1.10
라디오	1단계	2책 고교 국어듣기, 고교 영어듣기(1)	중상	1.10
고교듣기	2단계	1책 고교 영어듣기(2)		5.15
인터넷	사탐	4책 범교사회,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지리		
수능특강	과탐	4책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중상	1.10
언어	1책	300제	최상	3.31
고득점 N제	외국어	2책 외국어 200제, 외국어 어법&어휘 100제	최상	3.31
	수리	5책 과 적분 50제, 확률과 통계 50제, 이산수학 50제	최상	3.31
언어	5책	시문학, 소설문학, 수필&극문학, 비문학, 쓰기& 어휘&아이법	상	2.20
인터넷	수리	수리 I : 수열/수열의 극한, 수학 I :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학 II : 확률 /통계 수리 II : 범교산과 부동식/이차곡선, 험수의 극한과 연속성/다항함수와 미분법/다행함수의 적분법/공간형태와 공간좌표/벡터	상	2.15
선택별	외국어	4책 영어독해연습(1), 영문법특강, 영어어휘특강, 영어독해연습(2)		
10주완성	수능특강	15책 언어, 외국어, 수리-수학 I, 수리-수학 II, 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중상	5.15
EBS Final	수능특강	15책 언어, 외국어, 수리-기형, 수리-나형, 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중상	6.30
파이널	사탐	4책 범교사회,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지리		
실전모의	과탐	4책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중상	6.30
직탐	17책	정보기술기초, 컴퓨터일반, 상용경제, 공업일문, 농업정보관리, 수신해운 정보보관, 농업이해, 기초제도, 해사일반, 해양일반, 수산일반, 인간개발, 식품과영양, 디자인일반, 프로그래밍, 농업기초 기술, 회계원리	중상	6.30
2외국어	8책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란어, 한문		



풍암호수 ‘Harmony’ 점등

23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에서 열린 서구 삼정을 ‘Harmony(회합)’ 점등식에서 태양 모양의 심볼 마크가 환한 빛을 밝히고 있다. 폭 20m, 높이 15m 규모로 빛(光)을 형상화하고 태양·산·물을 주제로 한 ‘Harmony’는 광주시와 서구민의 회합을 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24곳 연구·선도학교 선정

개정교육과정 시범 적용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조기에 시범 적용할 연구·선도학교로 광주·전남 24곳 등 전국에서 모두

200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는 운천초, 동림초, 유덕초, 봉산초, 살레시오중, 양산중, 상일중, 서석중, 전남고, 광주제일고, 광주예술고, 광주공업고 등 12곳이며, 전남은 광야초, 나주초, 안심초, 노화초,

나주다시중, 장흥중, 광양중등중, 목포정명여중, 석교고, 여수충무고, 장성실고, 영암여고 등 12곳이다. 이를 학교에서는 고교별 기준 시수의 20%가 증감 운영되는 등 교육과정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교과교실제 운영, 학습부진아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 배려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노점상인 김씨 등은 이 고교 졸업 후 대학 사회복지과에 진학,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장애인들을 도우려 입학원서를 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청각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특수교사도 배치돼 있지 않아 입학을 거부했다. 학교 측은 김씨 등에게 특수교육기관인 인화학교와 방송통신

신고등학교로 입학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입학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차별금지법)상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께 학교에서 입학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구비해 줬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입학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입학을 허가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우리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만큼 장애인 입학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특수교육법을 끼울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또 황사…3월 벌써 5차례

광주·전남 오늘 흐리고 5~20mm 비

23일 광주에 또다시 황사가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5분 광주에 미세먼지 농도 266µg/m³의 온은 황사가 관측됐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흑산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고치(2천 847µg/m³)에 이르는 최악의 황사가 엄습하는 등 3월 들어서만 5차례, 올 들어서만 벌써 6차례나 황사가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1~3월 관측된 3차례의 황사와 비교하면 관측횟수와 농도 면에서도 모두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상청은 예상보다 빨리 황사 발생일자 중국 대륙 등에 쌓였던 눈이 녹고 주요 황사발원지에서 기압계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황사가 발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황사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4일 광주·전남은 비가 내리고 온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20mm. 이 날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황사 길거리 음식 조심

섭취 땐 식중독 위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황사가 발생할 때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과 세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황사에는 유해 중금속과 바이러스 등 미생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심한 황사에 오염된 식품은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황사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식품은 밀봉하지 않고 판매하는 농수산물이나 외부에 노출된 채 판매하는 길거리 음식 등이다. 또 식품을 가공·조리하는 종사자의 손이나 옷에 묻은 황사에 의해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4일 광주·전남은 비가 내리고 온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고식약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결로 금방이 망을
건강과 풍족의 월령복으로~

공방이 새겨/길로방자 공사는
(주)여마한지
화석한복·화장장한복
단번에 해결하세요!

개정교육과정 시범 적용

교과교실제 운영, 학습부진아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 배려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노점상인 김씨 등은 이 고교 졸업 후 대학 사회복지과에 진학,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장애인들을 도우려 입학원서를 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청각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특수교사도 배치돼 있지 않아 입학을 거부했다. 학교 측은 김씨 등에게 특수교육기관인 인화학교와 방송통신

2010-03-24 0444, 010-6603-0405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라인 출판하고 낸 사주는 라풀루 펍으로

이름(운명)을 바꿔 개명하여
운명(壽